

# 주간 통일정세

2016-52

## Contents

###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12.24	北, 부정부패 허부 당 조직까지 만연...김정은 "시정하라" 질타(연합뉴스)
		北, 김정은에 충성 독려...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25주년(연합뉴스)
	12.25	김정은, 김정숙·김정일 기념일에 육아원·양로원에 선물(연합뉴스)
		김정은, 黨행사에 또 양복차림...“세련된 지도자 이미지 선전”(연합뉴스)
	12.26	김정은, 黨초급간부에 “혁명 망치는 관료화 뿌리 뽑아야”(종합)
	12.27	태영호 “北외교관들, 컴퓨터 켜면 연합뉴스부터 열어봐”(연합뉴스)
		北, 제재 와중에 내년 9월 원산서 ‘에어쇼’ 또 개최(연합뉴스)
		北, 반기문 대선출마 시사 후 일주일째 ‘막말’ 비난(연합뉴스) 北, 헌법절 맞아 ‘김정은 유일 영도’ 강조(연합뉴스)
	12.28	北, 제재 이후 외교사절에 잇단 ‘설명회’(연합뉴스)
		평양건축종합대학, 北 건축설계 ‘컨트롤타워’ 역할(연합뉴스)
		친북매체 “北, 려명거리 완공 내년 4월15일로 변경”(연합뉴스) 北매체, 핵능력 고도화 자화자찬...“美에 통쾌한 승리”(연합뉴스)
	12.29	北김정은 “당일꾼 ‘기밀유출’ 엄하게 처벌하라”(연합뉴스)
		김정은, 1년2개월 만에 ‘北걸그룹’ 모란봉악단 공연 관람(연합뉴스)
		“北김정은 5년간 총살·숙청 340명...핵·미사일에 3억 달러”(연합뉴스)
		北, 새해 달력 배포...백두산·마식령스키장 등 소재(연합뉴스)
北,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5주년 맞아 ‘핵업적’ 부각(연합뉴스) 北매체 “조류독감에 전 세계 불안”...AI 실태 소개(연합뉴스)		
12.30	北 김정은, 연어 양식 실패하자 송어 대량양식 지시(연합뉴스)	
	北, 軍 수산부문열성자회의 개최...“어로 신화 창조”(연합뉴스)	
경제	12.25	北, 대북제재 결의 앞두고 석탄 수출 두 배 늘렸다(연합뉴스)
	12.27	북한 ‘문화홍보·돈줄’ 동상 수출도 유엔 안보리 제재로 타격(연합뉴스)
	12.28	北, 중국산 비료수입 급증...“11월 수입량 작년의 5배”(연합뉴스) “북한엔 불거리가 없다”...中유커 ‘반나절 신의주 관광’에 시큰둥(연합뉴스)
사회 문화	12.27	‘구글어스로 살펴보니’... 김정은 이후 북한에 시장 20개 생겨나(연합뉴스)
	12.28	“北 차량 번호판 중국식으로 교체...과란 바탕에 흰 글씨”(연합뉴스)
	12.29	北 올해 자연재해·사고 사망자 세계 4번째”(연합뉴스)

외교 국방	12.24	“유엔, 北 재래식 무기로 전용가능 물자목록 첫 공개”(연합뉴스)
	12.25	안보전략硏 “북, 스킨드·노동에 핵탄두 탑재기술 확보”(연합뉴스)
	12.27	北 사이버戰 능력, 美태평양사령부 마비시킬 수준(연합뉴스)
		“北, 美민간단체와 미군유해 발굴 논의…조건 제시”(연합뉴스)
	12.28	“김정은 핵포기 안해” 태영호 발언에 美 “핵보유국 인정안해”(연합뉴스)
		‘전통우방’ 북한·베트남 관계 위축…“투자·교역도 미미”(연합뉴스)
	12.29	VOA “北 금창리 인근서 미사일 기지 추정시설 포착”(연합뉴스)
	12.30	北, ‘김정은 미치광이’ 헝가리 장관 발언 해명 요구(연합뉴스)

## ■ 주간 동향

### 1.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2016. 12. 24.

##### ■ 北, 부정부패 하부 당 조직까지 만연...김정은 “시정하라” 질타(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3일 제1차 전국 노동당(전당) 초급당위원장 대회에서 부정부패가 하부 당 조직까지 만연한 것을 질타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지시함.
- 김 위원장은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개회사를 통해 “일부 당 일군(꾼)들 속에서 나타나는 부족점들이 우리의 (당)사업 발전을 저애(해)하며 대중 속에서 우리 당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함.
- 그는 “이번 대회의 기본 목적은 모든 참가자들이 당적 량(양)심을 가지고 자신들을 돌이켜보며 결함을 대담하게 시정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초급당 사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키는 대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하자는데 있다고 강조하시였다”고 통신은 전함.

2016. 12. 25.

##### ■ 김정은, 김정숙 김정일 기념일에 육아원·양로원에 선물(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조모인 김정숙의 생일이자 아버지 김정일의 최고 사령관 추대일인 24일 전국 육아원 등지에 식료품을 선물로 보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5일 보도함.
- 방송은 “(김정은이) 뜻깊은 명절인 12월 24일에 즈음하여 혁명학원들과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원아들, 양로원 보양생들에게 갖가지 식료품들을 보내주셨다”고 전함.
- 김정은은 또 세포지구축산기지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조은별 류경경제교류사업부원 등 근로자 10여 명에게 감사를 나타남.

##### ■ 김정은, 黨행사에 또 양복차림...“세련된 지도자 이미지 선전”(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사상 처음 개최한 초급 당위원장 대회에 이례적으

로 양복을 입고 나타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등 북한 관영매체가 24, 25일 각각 공개한 제1차 전당(전국 노동당)초급당위원장 대회 1~2일차 사진을 보면 김정은은 이틀 모두 양복 차림으로 회의를 주재함.
- 사진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 23일 평양체육관에서 대회 개최시를 할 때 검은색 바탕에 세로로 줄무늬가 난 양복에 흰색 셔츠, 밝은 톤의 은색 넥타이를 착용함.

## 2016. 12. 26.

### ■ 김정은, 黨초급간부에 “혁명 망치는 관료화 뿌리 뽑아야”(종합)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기층 당(黨) 간부들에게 행정 관료화가 인민을 억누르는 착취사회의 유물이라면서 이를 뿌리 뽑기 위한 투쟁을 주장함.
- 김정은은 25일 평양에서 열린 제1차 전당(전국 노동당) 초급 당위원장 대회 3일차 회의에서 ‘초급당을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결론’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함.
- 김정은은 행정 관료화가 “권력으로 인민들을 억누르는 낡은 착취사회의 유물”이라면서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혁명을 망쳐먹게 되며 나중에는 (당이)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함.

## 2016. 12. 29.

### ■ 北김정은 “당일꾼 ‘기밀유출’ 엄하게 처벌하라”(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금품을 받고 당 기밀문서를 유출한 당 일꾼들의 불법행위를 엄벌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됨.
- 연합뉴스가 29일 입수한 ‘당 내 비밀을 누설(누설)시킨 자료와 대책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은 노동당 총무부가 김정은의 지시 사항에 대한 대책 안을 만들어 각 지방 당 조직에 하달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이 문건에 따르면 김정은은 당 내부 문건 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기밀을 누설한 당 일꾼들을 엄하게 처벌하고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함.

### ■ 김정은, 1년2개월 만에 ‘北걸그룹’ 모란봉악단 공연 관람(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제1차 전당(전국 노동당) 초급 당위원장 대회

참가자들과 모란봉악단·공훈국가합창단의 합동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초급 당위원장 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합동 공연이 28일 평양에서 성대히 열렸다고 “김정은 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었다”고 밝힘.
- 김정은은 환호하는 대회 참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답례했다고 통신은 전함.

#### ■ “北김정은 5년간 총살·숙청 340명…핵·미사일에 3억 달러”(연합뉴스)

- 2011년 집권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5년간 총살·숙청한 인원이 340명에 달한다는 집계가 나옴.
-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김정은 집권 5년을 맞아 최근 펴낸 ‘김정은 집권 5년 실정 백서’에서 “김정은이 3대 세습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을 비롯한 고위 간부와 주민 340명을 공개 총살하거나 숙청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힘.
- 김정은은 부친 김정일의 사망 약 2주 뒤인 2011년 12월 30일 북한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돼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알렸다. 이듬해 4월에는 당 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당·정 권력까지 모두 차지하면서 사실상 권력 승계를 마무리함.

2016. 12. 30.

#### ■ 北 김정은, 연어 양식 실패하자 송어 대량양식 지시(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전국에 송어 양어장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소식통을 인용해 30일 보도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김정은이 2015년 5월 810군부대 낙산 바다양어사업소를 시찰하면서 대단한 성과라며 치켜세웠던 대서양 연어 대량 양어가 실패했다”면서 “중앙에서 대서양 연어 양식을 더는 장려하지 않고, 대신 전국 각지에 규모가 큰 송어 양어장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고 RFA는 전함.
- 김정은은 지난달부터 ‘물고기잡이 대풍’을 이뤘다고 주장하는 군 수산사업소를 잇달아 시찰하는 등 어업 발전을 독려하고 있음.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6. 12. 27.

### ■ 태영호 “北외교관들, 컴퓨터 커면 연합뉴스부터 열어봐”(연합뉴스)

- 태영호 전 주 영국 북한대사관 공사가 27일 “북한 외교관이 컴퓨터에서 처음 열어보는 것이 연합뉴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음.
- 태 전 공사는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연합뉴스(홈페이지의) 북한란에는 한국과 외국 언론이 북한과 관련해 보도한 것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함.
- 그러면서 “(연합뉴스에는) 대외접촉 사전 준비를 위해 적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나와 있다”며 “해외에 나간 사람이 인터넷 접속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임.

## 다. 공식행사

2016. 12. 27.

### ■ 北, 제재 외증에 내년 9월 원산서 ‘에어쇼’ 또 개최(연합뉴스)

- 북한이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제 ‘에어쇼’를 올해에 이어 내년 9월 강원도 원산에서 또 개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은 내년 9월 23~24일 ‘원산국제친선항공축전(Wonsan International Friendship Air Festival)-2017’을 연다고 행사 공식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것으로 27일 확인됨.
- 홈페이지는 메인 화면에서 “이 특별하고 성대한 행사가 2017년 9월 아름다운 해안도시 원산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을 소개하게 돼 기쁘다”며 “외국인 관광객 들은 귀빈으로 환영할 것”이라고 밝힘.

2016. 12. 30.

### ■ 北, 軍 수산부문열성자회의 개최…“어로 신화 창조”(연합뉴스)

- 김정은 정권의 어로 활동을 독려하는 인민군(軍) 수산부문 열성자회의가 29일 평양에서 개최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인민군 제4차 수산부문열성자회의가 29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함.

- 회의에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박영식 인민무력상을 비롯한 군 고위인사와 수산 부문 일꾼들, 노력 혁신자들이 참석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라. 주요 기관 행위

2016. 12. 28.

### ■ 北, 제재 이후 외교사절에 잇단 '설명회'(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달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2321호) 채택 이후 잇달아 평양 주재 외교사절 대상의 행사를 열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짐.
- 28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일 제재 결의 채택과 관련해 북한에 상주하는 일부 외교사절을 대상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행사를 가진 데 이어,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도 잇달아 유사한 행사를 개최함.
- 앞서 지난 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외무성이 평양에 주재하는 외교관들을 초청해 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 평양건축종합대학, 北 건축실제 '컨트롤타워' 역할(연합뉴스)

- 북한의 평양건축종합대학이 평양시 려명거리를 비롯해 김정은 체제의 주요 건축물 건설을 주도하고 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함.
- 북한 라디오 매체인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27일 “평양건축종합대학에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 교수 사업과 기념비적 건축물 설계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했다”면서 김정은 체제 들어 높아진 이 대학의 위상을 조명함.
- 이 대학 리봉춘 지도교원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대학의 교원·연구사·학생들은 려명거리와 삼지연군을 비롯하여 수백 개 대상, 수천 건의 설계도를 완성했다”고 밝힘.

### ■ 친북매체 “北, 려명거리 완공 내년 4월15일로 변경”(연합뉴스)

- 북한이 연내를 목표로 했던 평양 려명거리의 완공 시점을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인 내년 4월 15일로 연기했다고 미국의 친북 웹사이트 '민족통신'이 28일 보도함.
- 민족통신을 운영하는 노길남 대표는 이날 평양발 기사에서 려명거리 공사현장을 지휘하는 박성훈 시공분과장을 인용해 “당초 완공 일자(날짜)가 금년말이던

것을 2017년 4월 15일 태양절로 변경했다”고 전함.

- 북한 당국이 변경한 려명거리 완공 시점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2016. 12. 29.

■ **北, 새해 달력 배포…백두산·마식령스키장 등 소재(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14가지 종류의 2017년도 새해 달력을 제작해 배포 중이라고 북한의 라디오 매체인 조선중앙방송이 29일 보도함.
- 출판지도국 관계자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희망찬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 출판사에서 2017년 역사를 특색있게 편집해 내놓았다”면서 “이번에 (나온) 달력만 해도 14종이 되는데 매(每) 달력들이 다 잘 편집됐다”고 밝힘.
- 방송에 따르면 새해 달력은 백두산 노을, 금강산 만물상과 삼선암 등 북한의 절경을 소재로 삼았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6. 12. 24.

■ **北, 김정은에 충성 독려…‘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25주년(연합뉴스)**

-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최고사령관 추대 25주년인 24일 그의 업적인 ‘선군 사상’을 칭송하며 아들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독려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선군혁명 천만리 길에 령력히(역력히) 빛나는 거룩한 자욱(자국)’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위대한 선군 영장(김정은)만이 우리 장군님(김정일)의 선군혁명영도사의 거대한 역사적 의미와 그에 깃든 불멸의 업적을 헤아릴 수 있다”고 밝힘.
- 이 신문은 ‘정의의 수호자’란 표현을 써가며 김정일을 찬양한 뒤 “위대한 장군님 헤쳐가신 선군혁명 영도의 길우(위)에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이 선군혁명의 천만리를 가고 가신다”라고 김정은을 치켜세움.

2016. 12. 27.

■ **北, 반기문 대선출마 시사 후 일주일째 ‘막말’ 비난(연합뉴스)**

- 북한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시사 발언 이후 일주일째 강도 높게 반 총장을 비난하고 있음.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멀리 태평양 건너에 틀고앉아 쑥대밭이 되어가는 남조선정국을 관망하며 은근히 즐기던 반기문이 마침내 정치간상배의 굴뚝같은 권력야욕을 드러냈다”며 반 총장을 향해 ‘정치협잡꾼’, ‘권력 미치광이’ 등 막말 공세를 이어함.
- 신문은 “친미에 환장한 특등주구(반 총장을 지칭)를 청와대에 꼭두각시로 들여 앉혀 저들의 침략적인 대조선정책과 세계제패 야망실현에 적극 써먹자는 것이 미국의 흥심”이라는 음모론도 제기함.

#### ■ 北, 헌법질 맞아 ‘김정은 유일 영도’ 강조(연합뉴스)

- 북한은 ‘헌법질’인 27일 김일성·김정일 헌법이 우월한 헌법이라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유일 영도체제를 강조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영원불멸할 김일성-김정일 헌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자기의 헌법을 가지고 있지만, 수령의 존함으로 불리는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우리나라뿐”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된 때로부터 40여 년이 흘렀다며 “은 나라 천만 군민은 김일성-김정일 헌법으로 빛내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가슴 적신다”고 강조함.

2016. 12. 28.

#### ■ 北매체, 핵능력 고도화 자화자찬…“美에 통쾌한 승리”(연합뉴스)

- 북한 관영매체가 28일 지난 1년간의 핵능력 고도화 성과를 과시하며 “미국을 세계의 면전에서 보기 좋게 제압하고 통쾌한 대승리를 이룩했다”고 주장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6면에 게재한 ‘조선의 힘 꺾을 자 이 세상에 없다’는 제목의 정세논설에서 “우리의 전략적 지위는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다”며 이같이 밝힘.
- 논설은 북한이 ‘수소탄 시험’으로 주장하는 올해 1월 4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3월 전략군 탄도로켓 발사훈련, 6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무수단(북한명 ‘화성-10’) 시험발사, 8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 올해 있었던 주요 군사 도발을 빠짐없이 열거함.

2016. 12. 29.

■ **北,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5주년 맞아 '핵업적' 부각(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군 최고사령관 추대(12월 30일) 5주년을 하루 앞두고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 성과를 부각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자 3면에 '민족사적 대업을 이룩하신 영장의 발걸음 천하를 뒤흔든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2011년 최고사령관 등극 후 5년간 김정은의 핵·미사일 관련 행보를 되짚음.
- 신문은 "역사의 온갖 도전을 맞받아 전인미답의 생ن길을 헤쳐야 하는 시련 속에서 우리 원수님(김정은)께서 내리신 결단은 핵 억제력 강화의 길이었다"고 강변함.

■ **北매체 "조류독감에 전 세계 불안"…AI 실태 소개(연합뉴스)**

- 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급속한 확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북한 관영 매체가 AI의 위험성과 인체감염 예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해 눈길을 끌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자 6면에 '세계를 위협하며 전파되는 조류독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음.
- 앞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전날 '남조선 괴뢰당국의 허술한 방역정책이 낳은 심각한 후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내 언론을 인용해 한국 정부의 방역정책을 비난하는 등 한국 내 AI 확산 현황을 수차례 보도한 바 있음.

## 2. 경제

###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 나. 주요조치

2016. 12. 25.

■ **北, 대북제재 결의 앞두고 석탄 수출 두 배 늘렸다(연합뉴스)**

-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되기 직전 중국으로 석탄 등 광물 수출을 두 배가량 늘리며 이른바 '밀어내기'를 한 정황이 포착됨.

- 25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에 따르면 북한의 대(對) 중국 11월 수출은 2억5천600만 달러(약 3천80억원)로 작년 동기 대비 34.1% 늘어남.
- 특히 석탄 등 제재품목의 대 중국 수출은 1억4천668만 달러(약 1천770억원)로 전년보다 두 배가량인 99.6% 급증한 것으로 집계됨.

#### 다. 경제 상황

##### ■ 특이사항 없음

#### 라. 대외 경제 관계

2016. 12. 27.

##### ■ 북한 '문화홍보·돈줄' 동상 수출도 유엔 안보리 제재로 타격(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새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수출금지품목으로 지정한 동상은 수출금지품목에 처음 오른 특이한 품목임.
- 그러나 북한의 수출에 정통한 사람들은 동상 수출 금지령에 전혀 놀라지 않는다. 동상은 석탄과 천연자원만큼이나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품목이기 때문임.
- 특히 핵개발에 나선 북한에 대한 제재와 고립화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만수대창 작사와 그 수출 자회사가 북한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개선용이라고 여김.

2016. 12. 28.

##### ■ 北, 중국산 비료수입 급증…“11월 수입량 작년의 5배”(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비료의 양이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함.
- 한국무역협회가 집계한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북한이 11월 한 달간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는 313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가량 늘어났다고 방송은 밝힘.
- 북한이 올해 1~11월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량은 총 15만8천여t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만313t보다 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방송은 덧붙임.

##### ■ “북한엔 불거리가 없다”…中유커 ‘반나절 신의주 관광’에 시큰둥(연합뉴스)

- 북·중 접경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선보인 '북한 신의주 반나절 관광' 상품이

- 중국인 관광객(유커)들의 외면으로 이용자들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8일 북중 접경지역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7월 초부터 판매한 단둥의 신의주 반나절 관광 상품은 처음엔 인기를 끌면서 하루 수백명~1천명에 달하는 관광객 유치 실적을 올림.
  - 이 상품은 판매 70여 일 만에 1만6천여 명을 끌어 모아 하루 평균 200명 이상의 유치 실적을 올렸다고 소식통은 전함.

### 3. 사회문화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6. 12. 28.

##### ■ “北 차량 번호판 중국식으로 교체…파란 바탕에 흰 글씨”(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차량 번호판을 중국과 똑같은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씨 양식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28일 보도함.
- 함경북도 소식통은 이날 RFA에 “인민보안성의 지시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차량 번호판 교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지난 수십 년간 조선(북한)의 번호판은 흰 판에 검정 글씨로 되어 있었다. 최근 보안성에서 교체하라고 지시한 번호판은 중국 차량 번호판처럼 파란 판에 흰 글씨로 돼 있다”고 밝힘.
- 소식통은 “번호판 교체는 각 구역안전부 호안과(교통과)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은행에서 구매한 수입인지를 붙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서 “보안성에서 번호판 교체를 연말까지 끝내도록 지시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전함.

#### 나. 시장관련

2016. 12. 27.

##### ■ ‘구글어스로 살펴보니’… 김정은 이후 북한에 시장 20개 생겨나(연합뉴스)

- 구글어스 등 위성이미지를 활용해 불투명한 북한 사회와 경제를 관찰한 결과 경제특구 개발이 대거 무산된 것으로 나타남. 김정은 체제에서 공식시장인 종합시장은 20개가 새로 생긴 것으로 분석됨.
- 커티스 멜빈 한미연구소(USKI) 연구원은 ‘KDI 북한경제리뷰 12월호’에 실린

‘위성이미지가 김정은 체제 하의 북한경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가?’라는 글에서 유·무료 위성이미지를 수집해 북한경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고 27일 밝힘.

- 분석 결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집권 이후 24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를 지정했는데 이 중 대부분은 진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 특이사항 없음

#### 라. 사회 동향

2016. 12. 29.

##### ■ 北 올해 자연재해·사고 사망자 세계 4번째”(연합뉴스)

- 올해 북한에서 자연재해와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세계에서 4번째로 많았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벨기에 루뱅대학 재난역학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29일 보도함.
- RFA에 따르면 재난역학연구소는 최근 공개한 ‘2016 자연재해의 인명피해’ 보고서를 통해 올해 북한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598명으로 집계돼 중국(1천151명)과 인도(884명), 에콰도르(686명)에 이어 4번째를 차지했다고 밝힘.
- 이 같은 수치는 인구 10만 명당 2.39명이 사망한 셈으로, 인구 비례 자연재해 사망자 비율에서도 아이티와 피지, 에콰도르에 이어 4번째를 기록함.

### 4. 외교국방

#### 가. 북·미 관계

2016. 12. 28.

##### ■ “北, 美민간단체와 미군유해 발굴 논의…조건 제시”(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지난 9월 방북한 미국 민간 대표단과 북한 내 6·25 참전 미군 유해의 발굴 문제를 논의했으나, 발굴 재개의 '선결 조건'을 제시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함.

- 방북단에 포함됐던 ‘한국전쟁과 냉전 시대 전쟁 포로와 실종자 가족 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이달 중순 회원들에게 보낸 올해 하반기 활동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RFA는 전함.
- 연합회의 릭 다운스 회장은 지난 9월 24~27일 미국 단체인 ‘리처드슨 센터 포 인게이지먼트’(Richardson Center for Global Engagement) 측과 함께 북한을 방문, 한성렬 외무성 부상 등과 미군유해 발굴 문제를 논의함.

■ **“김정은 핵포기 안해” 태영호 발언에 美 “핵보유국 인정안해”(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의 발언과 관련,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애나 리치 앨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 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지도자는 비핵화를 통해 그들이 추구하는 평화와 안보, 번영을 이룰지, 아니면 지금의 행보를 계속해 점점 큰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결핍에 직면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함.
- 리치 앨런 대변인은 또 “(유엔 안보리의 신규 대북제재인) 결의 2321호는 북한이 더욱 소외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다”며 강력한 대북제재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나. 북·중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북·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북·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6. 12. 28.

### ■ ‘전통우방’ 북한-베트남 관계 위축…“투자·교역도 미미”(연합뉴스)

- 전통 우방인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확대에 갈수록 위축되며 의례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28일 코트라 호찌민무역관과 외교가에 따르면 북한과 베트남은 양국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인사를 주고받는 일반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 교류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호찌민무역관은 ‘2016년 하반기 베트남-북한 관계 동향’ 보고서에서 “양국 수교 65주년인 작년에 비해 올해는 두 나라 간 공식 방문이 매우 적었다”며 고위 사절단의 경우 북한은 베트남을 3차례, 베트남은 북한을 1차례 방문한 것으로 파악함.

2016. 12. 30.

### ■ 北, ‘김정은 미치광이’ 헝가리 장관 발언 해명 요구(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자신들의 핵 개발과 김정은의 독재정치를 강하게 비난한 헝가리 외교부에 해명을 요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0일 보도함.
- 오스트리아 주재 북한대사관은 최근 페테르 시야르토 헝가리 외교통상부 장관의 대북 비난 언론 인터뷰에 불만을 표출하고 해명을 요구함.
- 시야르토 장관은 지난 16일 헝가리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수니파 무장단체 ISIL(IS의 다른 이름) 다음으로 세계에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라며 “북한 지도자는 미치광이 공산주의 독재자로, 전 세계에 위협”이라고 주장함. 이어 시야르토 장관은 유엔의 제재와 별도로 유럽연합이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함.

##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6. 12. 24.

### ■ “유엔, 北 재래식 무기로 전용가능 물자목록 첫 공개”(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 전

- 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의 목록을 처음 공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4일 보도함.
- 대북제재 1718 위원회가 공개한 물자목록은 14페이지 분량으로 특수재료와 관련 장비, 재료 처리 장비, 전자제품, 통신, 센서와 레이저, 항해 및 항공전자, 해양시스템 장비와 부품, 항공우주와 추진체 등 총 8개 항목임.
  - 항목마다 물자의 이름과 함께 전문적인 수치 정보가 상세하게 명시됐다고 VOA는 전함.

2016. 12. 25.

■ **안보전략연구 “북, 스커드·노동에 핵탄두 탑재기술 확보”(연합뉴스)**

- 북한은 스커드·노동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25일 제기됨.
-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하 연구원)은 ‘2016년도 연례 정세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늦어도 2020년까지 핵무기 숫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미국 서부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함.
- 연구원은 “북핵 문제의 심각성은 북한이 핵무기 숫자를 급속히 늘리고 있으며, 소형화, 다중화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라며 “북한은 4·5차 핵실험을 통해 최소 증폭핵분열탄 수준의 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2016. 12. 27.

■ **北 사이버戰 능력, 美태평양사령부 마비시킬 수준(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가 최근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을 모의실험한 결과, 하와이에 있는 미군 태평양사령부 지휘통제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함.
-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27일 발간한 ‘국방과학기술조사서’에 북한의 사이버전 모의실험 결과와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 등을 자세히 소개함.
- 기품원은 “미국 국방부가 최근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에 대해 모의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 미군 태평양사령부 지휘통제소를 마비시키고, 미국 본토 전력망에 피해를 줄 정도의 수준을 가진 것으로 분석했다”고 전함.

2016. 12. 29.

■ VOA “北 금창리 인근서 미사일 기지 추정시설 포착”(연합뉴스)

- 북한 평안북도 금창리 인근 산악지대에서 미사일 기지로 추정되는 시설이 위성 사진을 통해 포착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9일 보도함.
- 방송은 인공위성 분석업체 ‘스트래티직 센티널’(Strategic Sentinel, S2)사를 인용해 이 지역에서 지하 미사일 발사 격납고(사일로)와 조립·관측 용도로 보이는 건물 등이 확인됐다고 밝힘.
- 이 가운데 격납고로 추정되는 시설은 길이 7.4m 텃개로 가려져 있으며, 모양과 배기구 위치 등이 이란 타브리즈 미사일 기지와 동일하다고 업체는 주장함.

## Ⅱ 동북아정세

### 1. 한반도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12.26	“한·미·일, 내달 트럼프 정권 출범 전 외교차관 협의”(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12.29	윤병세, 중사드보복에 정부는 단호대응·민간은 큰 틀서 봐야(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12.27	외교부, 아베 진주만 방문 관심갖고 보고 있다(연합뉴스)	
	12.29	정부, 日방위상 야스쿠니참배 강력항의...주한 공사·무관 조치(연합뉴스) 국방부, 주한 日무관 불러 방위상 야스쿠니참배 항의(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 2. 주변국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12.29		중국 “美전략폭격기 남중국해서 훈련” “中항모 기동 희석용”(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12.26	미일, 주일미군 군무원 범위 축소 원칙 합의(연합뉴스)	아베 “전쟁 참화 되풀이 안해”...“진주만서 미래 메시지 보낼 것”(연합뉴스)
			내달 괌 미군기지 찾는 日 방위상 사드 시찰은 보류(연합뉴스)
	12.27		아베 日총리 美하와이 도착...진주만 공습 추모 방문 일정 시작(연합뉴스)
	12.30	美 日현직 방위상 첫 야스쿠니 참배에 불쾌감...“상당히 유감”(연합뉴스)	
		미-일, 동해상 北미사일 공동감시체계 가동 중(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12.28	美 러시아 해킹 대선개입에 경제제재 등 보복...조만간 발표(연합뉴스)	
	12.29	美의원 “러시아든 북한이든 해킹 용납 못해...트럼프도 같은 입장”(연합뉴스)	
	12.30	美 ‘러 대선개입 해킹’ 보복...외교관 35명 추방·2개 시설 폐쇄(연합뉴스)	러, 美제재 맹비난 “레임덕 오바마의 헛발질...응당한 조치할것”(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12.29		트럼프 TPP 탈퇴에 난감해진 日, 中 주도 RCEP 협의 계속하기로(연합뉴스)
		中, 日방위상 야스쿠니 참배에 “결연히 반대...엄중 항의할 것”(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12.26		“푸틴, 러·일평화조약 위한 ‘결의’ 합의에 난색 표했다”(연합뉴스)

## ■ 주간 동향

### 1. 한반도정세

#### 가. 한·미 관계

2016. 12. 26.

##### ■ “한·미·일, 내달 트럼프 정권 출범 전 외교차관 협의”(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 일본이 다음 달 워싱턴에서 3국 외교차관 협의를 갖고 대북제재, 안보협력 등을 논의함.
-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1월초 워싱턴에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세 나라가 조율하고 있다”고 전함.
- 이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세 나라가 차관급 협의를 하는 의미에 대해 “대북정책 등 정책의 연속성과 계속성을 이어가는 차원”이라고 말함.

#### 나. 한·중 관계

2016. 12. 29.

##### ■ 윤병세, 중사드보복에 정부는 단호대응·민간은 큰 틀서 봐야(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성 조치에 대해 “정부 차원서도 단호히 대응해야겠지만 민간에서도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윤 장관은 29일 외교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우리의 사드 결정을 번복시키는 게 (중국 측) 목표라면, 주권적인 결정에 대해 이런 방식으로 조치를 취한다면 정부 차원서도 단호히 대응해야겠지만 민간에서도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윤 장관은 ‘한류 제한령’ 등 중국의 조치에 대해 “모든 과정에서 국내 동향, 한미 간 동향을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계속 어떤 신호를 보내려는 것 아닌가 하고 느껴진다”며 이를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함.

#### 다. 한·일 관계

2016. 12. 27.

■ **외교부, 아베 진주만 방문 관심갖고 보고 있다(연합뉴스)**

- 외교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26~27일(현지시간) 하와이 진주만 방문에 대해 “우리 정부로서도 관련 동향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고 밝힘.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기자로부터 아베 총리의 진주만 방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질문받자 “우리 언론의 보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함.
- 조 대변인은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동원됐다가 숨진 한국인 강제 징용·징병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음.

2016. 12. 29.

■ **정부, 방위상 야스쿠니참배 강력항의…주한 공사 무관 초치(연합뉴스)**

- 정부는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일본 방위상이 현직 방위상으로는 처음으로 29일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자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며 강력히 항의함.
- 외교부와 국방부는 각각 마루야마 고헤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공사)와 다카하시 히데아키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초치해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 입장을 전달함.
-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오늘 과거 식민 침탈과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정부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힘.

■ **국방부, 주한 日무관 불러 방위상 야스쿠니참배 항의(연합뉴스)**

- 국방부는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일본 방위상이 현직 방위상으로는 처음으로 29일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과 관련,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함.
-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서울 용산 국방부로 초치된 다카하시 히데아키(高橋秀彰) 주한 일본 국방무관(해군 대령)에게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국방부는 전함.
- 국방부는 앞서 입장자료에서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오늘 과거 식민침탈과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힘.

##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2. 주변국정세

### 가. 미·중 관계

2016. 12. 29.

- 중국 “美전략폭격기 남중국해서 훈련” “中항모 기동 희석용”(연합뉴스)
  - 미국 본토에서 발진한 전략폭격기가 최근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훈련을 한 후 본토로 돌아갔다고 중국 관영 인민망이 29일 보도함.
  - 인민망은 미군 태평양사령부의 최근 소식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 3~18일 미국 본토에서 B-52 전략폭격기와 괌 기지의 B-1B 폭격기가 함께 남중국해로 날아왔고 7대의 공중급유기와 이지스 구축함이 함께 훈련에 참가했다고 전함.
  - 중국 관영매체가 미군 전략폭격기의 남중국해 훈련을 뒤늦게 보도하고 나선 것은 최근 중국의 제1 항공모함인 라오닝 호 전단의 해상훈련을 희석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음.

### 나. 미·일 관계

2016. 12. 26.

- 아베 “전쟁 참화 되풀이 안해”...“진주만서 미래 메시지 보낼 것”(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 하와이 진주만 방문과 관련해 “두 번 다시 전쟁의 참화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미래를 향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싶다”고 26일 밝힘.
  -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일본 경제단체인 게이단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함.
  - 아베 총리는 이날 밤 정부 전용기 편으로 하네다 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현지시간 27일 낮(일본시간 28일 오전)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침몰한 미국 함정 위에 세워진 애리조나기념관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함께 방문해 헌화하고 추도할 예정임.

### ■ 미일, 주일미군 군무원 범위 축소 원칙 합의(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 정부가 26일 주일미군 군무원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미일 지위협정 보충협정을 맺는데 합의함.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외무성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주일미군 군무원의 범위를 축소하도록 협정을 만들자는데 양국이 실질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힘.
- 이번 합의에 따라 미일 정부는 앞으로 추가 협의를 거쳐 미일지위협정을 보충하는 정부간 협정을 체결할 방침임.

### ■ 내달 괌 미군기지 찾는 日 방위상 사드 시찰은 보류(연합뉴스)

- 다음달 미국 괌을 방문하는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일본 방위상이 당초 계획했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시찰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6일 전함.
- 지난 15~16일 일본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의 정상회담에서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따른 것임.
-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와 무관하게 사드 도입은 계속 검토해 나갈 방침임.

2016. 12. 27.

### ■ 아베 日총리 美하와이 도착…진주만 공습 추모 방문 일정 시작(연합뉴스)

-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진주만 공습 피해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미국 하와이 주 진주만 방문에 나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6일 오전(현지시간) 진주만-히캄 합동기지에 도착함.
- 아베 총리는 도착 후 태평양전쟁 전사자들이 잠든 미국 국립태평양기념묘지에 헌화하고 2001년 하와이 주에서 발생한 에히메(愛媛)현립 우와지마(宇和島) 수산고 실습선 에히메마루호 침몰사고 희생자 위령비를 찾는 것으로 방문 일정을 시작함.
- 국립태평양기념묘지는 태평양전쟁에서 전사한 1만3천 명 이상의 미군이 영면한 곳임.

2016. 12. 30.

■ **美, 日현직 방위상 첫 야스쿠니 참배에 불쾌감...“상당히 유감”(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이마무라 마사히로 일본 부총상에 이어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이 현직 방위상으로는 처음으로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삼간 채 치유와 화해 방식의 접근법이 중요하다는 기존원칙을 재차 강조함.
- 다만 비공식적으로 유감스럽다며 불쾌감을 드러내는 미국 정부 관계자의 반응도 있었음. 미국 주요 언론들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진주만 방문 직후 감행된 참배라는 점을 지적하며 비판적으로 보도함.
- 한국의 외교부와 국방부는 각각 마루야마 고헤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공사)와 다카하시 히데아키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초치해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 입장을 전달함.

■ **마일, 동해상 北미사일 공동감시체계 가동 중(연합뉴스)**

- 일본과 미국이 동해 상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시 요격하는 공동감시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음.
-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군은 일본 정부의 요청을 받아 올해 가을부터 동해 상에서 일본의 24시간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에 참여하고 있음.
- 신문은 자위대의 임무를 미군이 대신 커버해주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그만큼 북한의 위협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함.

## 다. 미·러 관계

2016. 12. 28.

■ **美, 러시아 해킹 대선개입에 경제제재 등 보복...조만간 발표(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해킹을 통한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에 경제 제재를 포함한 보복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7일(현지시간) 복수의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함.
- 이르면 금주 발표된 제재안에는 경제 제재 외에 규탄 결의안 마련, 은밀한 사이버 보복, 러시아 해커에 대한 형사적 기소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관리들은 전함.
- 이는 러시아가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미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전국위원회(DNC) 등에 대한 해킹을 감행했다는 최근 중앙정보국(CIA)의 결론에 따른 것임.

2016. 12. 29.

■ **美의원 “러시아든 북한이든 해킹 용납못해…트럼프도 같은 입장”(연합뉴스)**

- 미국 공화당 소속 크리스 콜린스(뉴욕) 하원의원은 28일(현지시간) 러시아의 미국 대선개입 해킹 논란과 관련, “해당 국가가 러시아든 중국이든, 북한이든, 이란이든 사이버 해킹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입장이며, 거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함.
- 콜린스 의원은 이날 CNN 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 해킹 문제를 둘러싸고 트럼프 당선인과 의원들이 대립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힘.
- 콜린스 의원은 이어 “우리는 (해킹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임.

2016. 12. 30.

■ **美 ‘러 대선개입 해킹’ 보복…외교관 35명 추방·2개 시설 폐쇄(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29일(현지시간) 러시아의 미국 ‘대선개입 해킹’ 의혹에 대한 고강도 보복 조치를 단행함.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사태 등으로 줄곧 마찰을 빚어온 미·러 양국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게 팽 전망임.
- 백악관과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외교관 무더기 추방, 미국 내 러시아 공관시설 폐쇄, 해킹 관련 기관과 개인에 대한 경제제재를 골자로 한 대(對)러시아 제재안을 공식 발표함.
- 러시아 정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역효과를 초래하고 양국의 관계 복원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러시아 정부가 미국에 대해 맞대응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음.

■ **러, 美제재 맹비난 “레임덕 오바마의 헛발질…응당한 조처할것”(연합뉴스)**

- 러시아가 미국 정부의 대선개입 해킹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 외교관 추방 등 강력한 보복조치를 한 데 강력히 반발하며 맞대응을 경고함.
- 29일(현지시간) 타스통신과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크렘린궁은 미국이 러시

이에 부과한 새 제재가 전혀 근거 없는 조치라면서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힘.

-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비서(공보수석)는 “(미국의) 이런 결정과 제재는 사실무근일 뿐 아니라 국제법상 불법”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근거 없는 혐의와 비난을 거부한다”고 말함.

## 라. 중·일 관계

2016. 12. 29.

### ■ 트럼프 TPP 탈퇴에 난감해진 日, 中 주도 RCEP 협의 계속하기로(연합뉴스)

- 일본과 중국 정부가 28일 차관급 회의를 열고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해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NHK 등이 29일 보도함.
- 양국은 이날 일본 도쿄 시내에서 일본의 가타가미 게이이치 외무심의관과 가오옌 중국 상무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파트너십 협의'를 열고 RCEP 교섭을 진전시키기로 뜻을 모음.
- 이날 협의에서 일본은 양국 경제 분야 장관이 참여하는 고위급 관료 대화를 재개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중국 측도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짐.

### ■ 中, 日방위상 야스쿠니 참배에 “결연히 반대…엄중 항의할 것”(연합뉴스)

- 중국은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의 29일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에 강력히 반발함.
- 외교부와 국방부 등 중국 정부는 물론 관영 매체와 전문가들까지 나서 결연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일본 지도자들의 과거사 반성을 거듭 촉구하고 나선 것임.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나다 방위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일본에 엄정한 항의(교섭)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함.

## 마. 중·러 관계

### ■ 특이사항 없음

## 바. 일·러 관계

2016. 12. 26.

### ■ “푸틴, 러·일평화조약 위한 ‘결의’ 합의에 난색 표했다”(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난 15일 정상회담에 서는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과 관련된 이견으로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전함.
- 이는 앞서 지난달 열린 양국 간 실무협상에서 “북방영토가 반환되면 (미군이 주둔할 수도 있는)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일본 측의 발언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반발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양국 외교당국 간에 사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베 총리가 ‘평화조약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를 문서에 넣을 것을 직접 제안했고 푸틴 대통령은 “무슨 말이나”고 반문했다는 것임.

# Ⅲ 북한인권

##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12.24	“폴란드, 北 노동자 고용기업 위법사례 적발”(연합뉴스)
	12.26	일본 “납북자 12명 송환 위해 최선 다할 것” (미국의소리)
	12.29	“오만 체류 北노동자 300명, 전원 본국 송환”(연합뉴스)
	12.30	北 인권침해 갈수록 심각…개선 가능성 없어 보여(연합뉴스)
북한인권 내부동향	12.26	“北, 접경지역에 탈북 방지용 적외선 카메라 늘려”(연합뉴스)
	12.28	北방송 “올해 전국에 고아 교육시설 20여곳 설립”(연합뉴스)
북한인권 남한동향	12.26	북한인권재단 4개월째 표류…연내 출범 사실상 무산(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대북지원	12.27	유니세프, 북한 수해 취약계층 영양실조 급증…지원 시급(미국의소리)

## ■ 주간 동향

###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6. 12. 24.

#### ■ “폴란드, 北 노동자 고용기업 위법사례 적발”(연합뉴스)

- 폴란드 정부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자국 기업들의 노동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처벌 조치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4일 보도함.
- 폴란드 국가노동감독원은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폴란드 업체들을 대상으로 15차례 감사를 실시했다며 노동법과 ‘고용 촉진과 노동시장 제도법’을 위반한 다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방송은 전함.
- 노동감독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사례는 없었고, 강제노동이나 인신매매의 특징을 보이는 사례도 발생하지 않음.

2016. 12. 26.

#### ■ 일본 “납북자 12명 송환 위해 최선 다할 것” (미국의소리)

- 일본 정부가 북한과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비공식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일 양국은 지난 2014년 ‘스톡홀름 합의’를 통해 납북자 문제 해결에 합의했지만 이행이 중단된 상태임.
- 실제로 일본 정부는 납북자 문제에 관한 북한 측과의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일본 언론들은 일본과 북한이 최근 석 달 새 세 차례 이상 비공식 접촉을 했다고 보도함.
- 특히 북한 측에선 그동안 이 문제를 담당했던 외무성이 아닌 김정은 국무위원장 과 가까운 당 국제부 담당자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짐.

2016. 12. 29.

#### ■ “오만 체류 北노동자 300명, 전원 본국 송환”(연합뉴스)

- 오만에 체류했던 약 300명의 북한 노동자가 모두 본국으로 되돌아간 상태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함.
- 방송은 코트라(KOTRA) 무스카트 무역관이 지난 27일 작성한 ‘오만-북한 교역 동향 및 정치 현안’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힘.

- 코트라 무스카트 무역관은 “2015년 오만 내 최대 약 300명의 북한 근로자가 건설 공사를 위해 체류했던 것으로 추정되나, 오만 내 거주 중이었던 북한 근로자는 모두 본국으로 송환됐다”고 보고서에서 밝힘.

2016. 12. 30.

■ **北 인권침해 갈수록 심각...개선 가능성 없어 보여(연합뉴스)**

-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는 민간 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왔음.
-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해온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열린 ‘북한 인권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조사’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본 인식조사는 북한인권정보센터와 엔케이소셜리서치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일반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함.
- 센터에 따르면 북한 인권에 대해 우리 국민의 60%가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들 10명 중 9명(94.1%)은 북한 인권상황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개선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국민은 7명(74.4%)으로 나타났음.

##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6. 12. 26.

■ **“北, 접경지역에 탈북 방지용 적외선 카메라 늘려”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함경북도 회령시 북·중 접경지역에서 대량 탈북을 막기 위해 적외선 감시 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NK가 26일 보도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북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지역으로 지목된 회령시 유선 노동자구와 인계리 등 두만강 지구에서 지난 20일부터 중국에서 수입한 탈북 방지용 적외선 카메라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함.
-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이 지역에서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이 늘어나자 적외선 카메라를 2대에서 6대로 늘리도록 지시함.

2016. 12. 28.

■ **北방송 “올해 전국에 고아 교육시설 20여곳 설립”(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어린이 사랑’을 부각하는 가운데 올 한해 고아들을 위한 교육시설을 20여 곳 설립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8일 보도함.
- 조선중앙방송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따사로운 손길에 떠받들려 전국적으로 20여 개의 육아원·애육원과 초등학교·중등학교가 세상에 들도 없는 멋쟁이 궁전, 배움의 요람으로 훌륭히 일떠섰다”고 밝힘.
- 방송은 지난 1월 함경북도 육아원·애육원, 4월 들어 자강도와 평안남도, 황해북도 육아원·애육원 등이 차례로 세워졌다고 소개함.

###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6. 12. 26.

■ **북한인권재단 4개월째 표류...연내 출범 사실상 무산(연합뉴스)**

-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의 연내 출범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사 추천 지연으로 사실상 무산됨.
- 26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 이사 여야 추천 몫 10명 중 새누리당(5명)과 국민의당(1명)은 국회사무처 의사국에 명단을 제출했지만, 민주당(4명)은 아직 이사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음.
-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과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개발,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NGO) 지원 등의 역할을 함.

### 4. 탈북자 및 이산가족 남북자·국군포로

■ **특이사항 없음**

### 5. 대북지원

2016. 12. 27.

■ **유니세프, 북한 수해 취약계층 영양실조 급증...지원 시급(미국의소리)**

-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는 함경북도 수해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5백

만 달러가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힘.

- 유니세프는 최근 발표한 ‘북한 수해 복구 보고서’에서 지난 8월 말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홍수로 4만 5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취약계층의 영양실조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 이어 깨끗한 물이나 식량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수천여 명이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함.